

'전주천 · 삼천' 문화 · 낭만 흐른다

전주천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재해 예방 위한 대대적 하천 정비 가능해져 다양한 생활체육 · 물놀이 등 즐길 수 있는 공간도 곳곳에 들어설 예정

전주시가 전주의 젖줄인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수변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여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휴식과 문화, 여가를 즐기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우선 과제로 전주천과 삼천에 대한 대대적인 하천 정비를 추진해서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키로 했다. 안전성이 확보된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는 총 7곳의 통합문화공간을 새롭게 조성해,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를 꿈꾸는 전주의 대표적인 명소를 가꿔나갈 계획이다.

△전주천 국가하천 승격으로 치수 안전성 강화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러한 이유로 인류는 물줄기를 따라 문명을 발전시켜왔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전주는 전주천과 삼천을 따라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져 왔다. 때론 여름철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전주에 터를 잡고 살아온 시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시는 전주천·삼천 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 각종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천의 경우 지난해 12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주천과 지류하천인 조경

천·건산천 정비와 제방 정비, 횡단 구조물 개량, 퇴적토 준설 등 각종 하천정비사업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치수 정책을 바탕으로 거시적인 사업을 추진해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이자 창조적인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다.

△전주의 문화와 낭만, 물길 따라 흐른다

전주시는 각종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전주천과 삼천 곳곳에 전시와 공연, 체험, 놀이,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전주에는 △'서신 수변문화광장' △전통문화 등을 즐길 수 있는 '한옥마을 수변낭만터' △전주 관광의 외연을 확장하고 하천을 연결하는 '꽃바람길과 일당 바람쉼터' △멀티구경을 갖춘 '팔복 건강힐러마당'이 조성될 예정이다. 또, 삼천에는 △'세내 역사문화마당' △'마진 문화체육광장' △예술문화 활동으로 시민이 하나되는 '효자 화합마당'이 들어서게 된다.

먼저 4개 선도사업 중 하나인 '서신 수변문화광장'은 전주천 전주시 자원봉사센터 앞 기존 노후 광장과 과거 쓰레기 집하장으로 사용된 공간을 활용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이곳은 △수변마당 △보행교 △바다변수 △자전거 놀이원 △유아 물놀이장 등

친수공간을 갖춘 물과 사람이 모이는 공간으로 재창조된다.

또한 전주천 한벽교에서 싸잔다리 사이는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거점 공간인 '한옥마을 수변낭만터'로 변화한다. 시는 이곳에 △물빛마루(수변데크) △남천교 워터스크린, 미디어파사드 △전통놀이마당 △별빛광장 △한지문화광장 △수변문화마루 △야간경관 조성 등을 통해 수변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세 번째 선도사업인 '팔복 건강힐러마당'의 경우 전주천 신정보 인근의 기존 게이트볼장 및 농구장, 운동기구를 개선해 조성되며, 달리기 트랙과 근력 및 유산소 등이 가능한 멀티구장, 휴게공간을 확충해서 시민들의 여가 및 체력단련 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마지막 선도사업인 '세내 역사문화마당'의 경우 하천 산책로와 단순한 운동기구 등 공간 활용성이 부족한 삼천동 기점놀이전수관 앞 삼천변을 전시·공연·체험·놀이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주천·삼천, 지속가능한 명품 하천으로

시는 더욱 안전해지고 다양한 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게 될 전주천과 삼천을 지속가능한 명품하천으로 유지하기 위해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조도 개선에도 공을 들이기로 했다. 가장 먼저 시는 최근 기후변화와

물 부족 현상으로 인해 물 관리 대책이 절실한 가운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관저수지에 수문을 설치해 저수량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금학보 하천수의 상류 순환과 하수처리 방류수를 자외선과 오존처리 등을 거쳐 재처리한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해 풍부한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시는 전주천과 삼천의 상류로 각각 8만톤/일과 6만톤/일 상당의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고, 무릎 높이인 약 50cm 깊이의 물이 언제나 흐르도록 만들어서 하천 건천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물 순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도심 하천 정수조의 조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미 시는 지난해 삼천 세내교 하류 방향에 대한 LED조명등 신설 및 노후 조명 교체 완료했다. 여기에 오는 5월까지 전주천 전 구간에 대한 조도 개선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향후 시는 삼천 세내교 상류 방향까지 LED 등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하천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고 범죄도 예방할 계획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피해가 반복되면서 홍수 안전대책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하천을 수변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민들의 요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자연과 사람이 조화되는 거시적인 사업 추진으로 전주천과 삼천을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하천으로 재창조해 전주가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이자 창조적인 체류형 문화관광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사단법인 전주스포츠클럽은 6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전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 위한 따뜻한 나눔

전주스포츠클럽, 취약계층 위한 성금 1000만원 기부

사단법인 전주스포츠클럽(회장 오영근)은 6일 전주시복지재단에 전주시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사단법인 전주스포츠클럽에 소속된 회원 1000명이 겨울철 추위로 힘들어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는 (사)전주스포츠클럽은 해마다 소속된 회원들이 힘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오영근 전주스포츠클럽 회장은 "전주시민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나눔활동을 계속하게 된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에 앞장서는 (사)전주스포츠클럽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주스포츠클럽이 운영을 맡은 평화동 한바탕국민체육센터는 지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공공체육시설 최우수 시설로 선정됐으며, 농구와 배드민턴, 탁구, 당구, 헬스, 요가, 배구, SNPE(바른자세 척추운동) 등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옥기 기자



덕진구는 6일 관내 사단법인 사랑자리 임마누엘 청소년쉼터를 찾아 이웃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 청소년쉼터 찾아 나눔 실천

덕진구(구청장 김봉정)는 6일, 관내 사단법인 사랑자리 임마누엘 청소년쉼터(시설장 이성운)를 찾아 이웃사랑의 따뜻한 온정을 나누었다.

이번 방문은 설명질을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자 마련, 생활복지과 직원들은 시설종사자로부터 시설운영의 어려움을 경청 및 격려하였고 이웃사랑을 실천

하기 위해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확인 후 물품(백미, 라면)을 전달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은 "청소년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리고, 작은 정성이지만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관이 협력하여 따뜻한 소통을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따뜻한 손길 전해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356-C지구 전주 1, 2지역, 봉사 기금 후원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356-C지구 전주 1, 2지역 연합회(1지역 부총재 신상래, 2지역 부총재 노윤수)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원광모 자원(원장 조영례)에 봉사 기금 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356-C지구 전주 1, 2지역 연합회의 합동 봉사 기금으로 이루어졌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저소득한부모가족(모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

로 진행되었다. 전주 1지역 부총재 신상래, 2지역 부총재 노윤수 및 23개 클럽 회장단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감에 힘들어한다고 알고 있다"며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모은 기금을 통해 어려운 가정의 삶에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원광모자원 조영례 원장은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356-C지구의 후원에 진



라이온스 인터내셔널 356-C지구 전주 1, 2지역 연합회가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보호하고 있는 원광모자원에 봉사 기금 500만원을 후원했다.

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후원금은 경제적

립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